

제34회(2022년) 아산상 부문별 수상자 현황

부 문	수상자(단체)	주요 공적내용
아 산 상	박세엽	부산대 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한 수술과 진료봉사를 하였으며, 현재는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모리타니아에서 저소득 환자의 결핵치료에 헌신하는 등 해외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와 보건환경 개선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
의료봉사상	오동찬	조선대 치대를 졸업한 치과 전문의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사명으로 1995년 국립소록도병원에 공중보건의로 지원한 이후 지금까지 27년 동안 한센인 치과 치료에 전념하고 있음. 또한 한센병 후유증 환자들을 위해 ‘아랫입술 재건 수술법’ 을 개발해 500여 명을 치료함.
사회봉사상	작한목자 수녀회	1835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국제 수녀회로 한국에는 1966년 진출해 미혼모, 성폭력 피해 여성, 기출 여성청소년, 이주 여성 등 사회에서 외면 받아 온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56년간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음. 미혼모자 보호시설, 이주여성상담소, 1366 여성긴급전화 등 다양한 복지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외 여성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힘써옴.
복지실천상	강경규	1986년 천주교 도시빈민사목협의회회 활동을 시작으로 지난 36년간 철거지역, 쪽방촌, 비닐하우스촌과 같은 주거취약지역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자립, 복지증진에 기여해옴.
	김동혁	2005년부터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일자리 지원사업, 주거 취약계층 주택 지원사업 등 다방면으로 노숙인들의 자립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
	김태숙	2005년부터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교정사목부에 근무하며 수용자, 출소자와의 만남을 통해 재범을 줄이고 주거 및 자립을 지원하는 등 교정복지 증진에 기여함.
	남영란	성민복지관 사무국장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중점을 두고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음.
	홍유미	시청각 장애인의 권리증진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인식개선, 입법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시청각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자원봉사상	강민정	2000년부터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을 위한 한복보내기 프로그램, 태안 기름유출 사고현장, 폭설·수해 현장에서의 구호활동 등 22년간 17,700여 시간의 봉사활동을 펼쳐옴.
	김병록	구두수선집을 운영하며 헌 구두를 수선해 어려운 이웃에게 5,000켄데 이상을 기부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억4천만 원 상당의 임야를 파주시에 기부함.
	김시중	1986년부터 35년간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녹음 봉사활동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도서 제작에 기여했으며, 시각장애인 도서제작 확대를 위한 녹음봉사자 양성에 기여함.
	션	2004년부터 매일 1만원씩 기부해 현재까지 60억 원을 기부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 활동을 펼쳐 옴. 2020년에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보금자리 지원기금 마련에 힘써 옴.
	허운	1990년부터 주말마다 가족들과 함께 보육원을 찾아 봉사하고 보육원 후원자 협의회를 설립해 후원자와 함께 책을 출간하고 수익금 전액을 보육원에 기부함.
효행·가족상	김덕순	결혼 후 시조부모와 시부가 사망하기 전까지 부양하고 3명의 시동생과 3명의 자녀를 결혼시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보살폈으며, 시모를 32년째 부양하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
	박일호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저체중아로 태어나 각종 질환과 뇌성마비를 가진 5살 장남과 당뇨병과 노환으로 힘들어하는 노모를 함께 돌보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있음.
	위계홍	노부모를 23년간 부양하고 있으며, 중증 조현병을 앓고 있는 누나를 20년째 돌보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있음. 또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 주민들의 귀감이 되고 있음.
	이계숙	대가족의 만며느리로 결혼 후 5년간 시조부모의 병간호를 했으며 40년간 시부모를 부양하면서 4명의 시동생과 2명의 자녀 양육에 헌신했음.
	최이리나	우즈베키스탄 출신 결혼이주여성으로 2005년 남편을 만나 제주도로 이주 후 농사일을 하면서 고령의 시부모와 정신장애가 있는 시고모를 17년 동안 부양하고 있음.